

미·중 무역 이어 외교안보 대화도 끝났다

군사 분야까지 갈등 확산

中 “美 요구로 10월 대화 취소”

남중국해 군사 충돌 일촉즉발

미중 무역 및 외교·군사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양국 간 외교·안보 대화가 결국 연기됐다. 이는 미중 무역 분쟁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외교 및 군사 관련 대화마저 끊긴 것으로 미중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제2차 중미 외교·안보

대화 연기를 요구했다는 미국 매체의 보도에 대해 “중미 양측은 10월 중순에 외교·안보 대화를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미국 측이 최근 이번 대화 연기를 희망해왔다”면서 “중미 양측은 제2차 중미 외교·안보 대화 개최를 위해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 등은 중국이 10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 취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10월 중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양측의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 리쥔칭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참모장과 함께 외교안보대화를 개

최할 예정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1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번 미중 외교·안보대화 취소는 냉랭한 관계가 된 중국과 미국 사이의 불화를 보여주는 극명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관세 폭탄’ 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최근 군사 분야로 옮겨붙은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1일 자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매한 중국 군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어 그달 25일에는 F-16 전투기 등 군용기 예비 부품을 대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지난달 말에는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 2대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훈련까지 벌였다. 중국 또한 맞대응에 나서 주중 미국 대사를 조치하는 한편 해군 사령관의 방미 계획을 취소하고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중미 합동참모부 대화를 연기했다. 10월에 예정돼 있던 미 해군 갑상상륙함 와스프함의 홍콩 입항도 거부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미 해군 미사일 장착 구축함 디케이더함이 ‘항행의 자유’ 작전의 하나로 난사군도의 게이븐과 존슨 암초의 12해리 내 해역을 항해하자 중국 군함이 41m까지 접근해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다. /연합뉴스

100만 달러 빌려 자수성가? “트럼프 4000억대 부친 유산 편법 상속”

NYT “상속·증여세 탈루”

조세당국 “조사방안 강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친으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 현 시세로 4000억 원 이상을 받았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명백한 사기를 포함한 탈세를 통한 것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그러면서 이 보도가 트럼프 부친 및 부친 회사의 비밀 납세 신고서를 포함해 10만쪽 이상의 재무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보도에 대해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버지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2000만원)를 빌려 사업을 시작한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라고 자랑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친의 부동산을 통해 현 시세로 치면 4억1300만 달러(약 4625억원)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세 때 20만 달러(약 2억2000만원)를 받아 8세 때 백만장자가 됐으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1년에 100만

달러(약 11억2000만원)를 받았고 그 액수는 계속 늘어 40대와 50대에는 연간 500만 달러(약 56억원) 이상을 받았다. 또 트럼프와 그 형제들은 가짜 회사를 세워 부모로부터의 수백만 달러의 증여세를 숨길 수 있었으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버지를 도와 수백만 달러 이상의 부적절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신문은 자료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모가 총 10억 달러(약 1조1200억원) 이상을 자녀들에게 넘겨준 만큼, 당시 증여세와 상속세율이 55%인 점에 비춰보면 5억5000만 달러의 세금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016년 대선 이후 잘못된 보도에 사과했던 것처럼 아마도 NYT의 또 다른 사과가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뉴욕주 조세당국은 AP·AFP와 인터뷰에서 “NYT가 보도한 의혹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사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 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사 결과를 주 검찰에 보낸다. /연합뉴스

노벨재단 “수치 행동 유감” “노벨평화상 박탈은 불가”

노벨 재단이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을 방관하고 두둔한 아웅산 수치의 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노벨평화상을 박탈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벨재단의 라르스 하이켄스텐 사무총장은 전날 오후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하이켄스텐 사무총장은 “우리는 미얀마에서 수치가 미얀마에서 한 일들이 많은 의문을 낳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핵심 가치인 인권을 지지한다”며 “따라서 그녀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그렇더라도 노벨상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려면 노벨상 수상자의 사후 공적을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노벨상 수상자가 사후에 저지르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이런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진상조사단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부가 인종청소 의도를 갖고 로힝야족을 상대로 대량학살과 집단성폭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고, 고위장성 6명을 국제법에 따라 중범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지진 현장 찾은 인니 대통령 규모 7.5의 강진으로 무너진 인도네시아 중앙술라웨시 주 팔루 시 8층 호텔을 찾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北 신의주경제특구 개발 속도내나

초대 행정장관 양빈 대만 방문 롯데 그룹 등 참여 개발 논의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이었던 양빈이 지난달 29일 비밀리에 대만을 방문해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반과일보는 지난 1일 양빈이 타이베이 한 식당에서 리덩후이 전 총통의 최측근이었던 류타이잉 전 중화개발금융공사 이사장을 비밀리에 만났다고 3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류 전 이사장을 비롯한 대만 측 인사와 한국의 롯데 그룹, 말레이시

아의 젠팅 그룹 관계자도 참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만남의 목적은 북한 신의주경제특구 개발 사업 관련 논의였으며 이는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를 포함하는 다국적 투자의 포석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진태 비즈니스투데이 발행인은 오는 27일 시찰단과 함께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측통에 의하면 양빈이 신의주 행정장관의 신분으로 신의주 개발을 주도하는데 대해 이미 중국, 미국, 북한 정부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신의주경제특구 개발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압력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단둥 지역은 집값이 최소 3배 이상 뛰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6월에도 비밀리에 대만을 방문해 류 전 이사장을 만나 신의주경제특구 공동 개발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빈은 중국계 네덜란드인으로 1990년 어우아 그룹을 설립해 중국 제2갑부의 위치까지 올랐으며, 2002년 9월 북한이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공식 지정하면서 초대 행정장관에 임명됐다. /연합뉴스

성폭력 의혹 캐버노, 10년 해운 하버드대 강의 포기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를 포기했다고 AFP통신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하버드 로스쿨 행정처는 전날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캐버노 판사가 2019년 1월 학기에 더는 가르칠 수 없다고 알려왔다”면서 “해당 강의는 개설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가량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강의한 캐버노는 ‘2005년 이후의 대법원’이라는 이름의 3주 과정의 강의를 할 예정이었다. 강의를 그만두게 된 이유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었으나 이번 발표는 최근 하버드 로스쿨 졸업생 수백 명이 캐버노를 강단에서 쫓아내라는 청원에 서명한 직후 나왔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 온라인 청원은 학교 측에 캐버노의 강의를 취소해 그가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2일 오전까지 860명이 넘는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생이 서명했다. /연합뉴스

필리핀, 중국과 남중국해 석유 공동탐사 합의 추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이 자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중국해 석유 공동탐사라는 선물을 안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가 3일 보도했다. 해리 로게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시 주석의 마닐라 방문 기간에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의 석유 공동탐사 문제에 합

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 주석의 필리핀 방문때 중국과의 석유 공동탐사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2027년께에는 시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리핀이 짚는 공동탐사 후보지는 남중국해 리드뱅크(필리핀명 레토뱅크) 해역과 팔라완 섬 북서쪽 칼라미안 해역이다. /연합뉴스

※ 본 투시도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액세션,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 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슈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